

혼인지 신화의 현대적 재해석

홍정순*, 송문석**

목 차

- I. 서론
- II. 신화의 기호적 해석
- III.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이 논의는 혼인지 신화를 삼성시조 신화소와 혼인지 신화소로 나누고 이 신화소들의 의미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혼인지 신화를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하나의 이유는 시대적 필요성이다. 지금의 21세기는 세계화-지방화를 양축으로 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를 비롯한 각 지역의 지방정부는 여타지역과 다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문화상품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 주목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신화이다.

제주신화는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곧 제주의 신화가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지, 개발한다면 경쟁력 있

*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는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논의는 그리 효용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논의를 통해서 바로 제주 신화가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개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내기 위해서는 신화가 함의하고 있는 여러 층위의 의미들을 드러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재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문화콘텐츠의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 해답이기 보다는 혼인지 신화가 지니는 다층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를 밝혀내어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의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혼인지 신화를 다루어 오면서 혼인지 신화의 구체적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논의들이 대부분 혼인지 신화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기보다는 삼성혈과 삼성시조 신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데 있다. 그 결과 혼인지 신화보다는 삼성혈 신화가 더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혼인지와 삼성혈 이 두 장소는 신화가 구비 전승되는 과정에서 잠재되어 버린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 두 지역에 대한 의미부여에서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닌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시조신화가 출생과 관련된 출생지를 중심으로 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혼인지 신화는 혼례와 관련된 혼례의 장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혼인지의 신화적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혼인지의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그 신화를 기호학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혼인지 신화를 새롭게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동시에 삼성시조 신화와 혼인지 신화의 관계 정립에도 도움을 주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하는 연구진들에게 다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II. 신화의 기호적 해석

①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신인이 한라산 북녘 기슭의 모흥혈(毛興穴)에서 솟아났다. 만이를 양을나(良乙那), 둘째를 고을나(高乙那),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 하였다.

세 신인은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사는데, 하루는 자줏빛 흙으로 봉하여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돌함과 사자(使者)가 있었다.

돌함을 열어 보니 푸른 옷을 입은 세 처녀와 송아지·망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가 있었다.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인데 우리 임금의 세 딸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신자(神子) 셋이 태어나시어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며 신(臣)에게 명하시어 세 따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여 이곳으로 왔사오니, 마땅히 세 따님을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소서.”라고 하고 사자는 구름을 타고 떠났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장가들고, 물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였는데, 양을나가 거처한 곳을 제일도(第一都)라 하고, 고을나가 거처한 곳을 제이도라 하였으며, 부을나가 거처한 곳을 제삼도라 하였다. 그런 다음 비로소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요로워졌다.

② 삼성혈에서 솟아난 세 신인은 수렵생활을 하며 살았다. 어느 날 그들이 온 평리 마을에 이르렀을 때, 바다에서 커다란 돌 상자가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소리를 지르며 바닷가로 달려가니, 상자가 갈라지며 세 처녀가 오곡의 씨앗과 가축을 거느리고 물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옥황상제의 명에 의해 먼 나라에서 온 공주 일행이었다. 세 시인은 옥황상제의 뜻대로 세 공주를 맞아 마을 위쪽에 있는 ‘흰죽’이라는 못에서 목욕재계하고 혼인식을 올리니, 그로부터 그 못을 혼인지라 불렀고 이 땅에는 농경생활이 시작되었다.

①은 삼성신화로써 고(高)·양(良 : 뒤의 梁)·부(夫) 삼성 씨족의 시조신화이다. 이 신화는 탐라(耽羅) 개국신화로 『고려사』 권11, 『동국여지승람』·『탐라지』, 『영주지』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구전하는 무가나 전설로도 제주지역에 널리 전승되고 있다. ②는 혼인지 신화로 보통 지명유래 설화의 한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삼성신화와 그 연결고리가 매우 강함을 찾아 볼 수 있다.

혼인지 신화는 제주의 신화 중 특이한 면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첫째 혼인지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신화의 세계 속으로 쉽게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혼인지 신화는 제주의 개국신화라고 할 수 있는 삼성신화와도 직접적으로 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혼인지 신화인지 아니면 삼성시조신화인지 구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런 구별이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화를 관련 공간을 기준으로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신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모흥혈(毛興穴)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열운이(온평리) 또는 혼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모흥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삼성시조 신화소로, 그리고 혼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혼인지 신화소로 구분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삼성혈로 드러난 모흥혈의 의미와 혼인지의 신화적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화는 무의미한 황당무계한 사건이 아니다. 그 속에는 당시의 생활과 사회조직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신화는 그 내포된 의미는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구비전승에서 변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언어는 기표와 개념 그리고 이미지의 변이와 변화를 발생시켜 원래 의미를 잠재시키게 된다. 그것은 신화가 처음에 갖고 있던 당시의 생활과 사회조직 세계관 등을 의미의 표층에서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표층에 남아있는 신화는 의미조직이 파괴되어 인과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렇다고 표층에서 심층으로 잠재된 신화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잠재의 과정에는 기호작용의 원리가 들어 있다. 따라서 신화의 구비전승 과정에

는 반드시 인간에 의해 수행되는 기호작용의 원리가 들어 있음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전승의 결과도 반드시 이 원리에 의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기호이며 동시에 기호작용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는 현실의 문화만이 아니라 신화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혼인지 신화나 삼성시조 신화도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호작용의 범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기호와 기호작용으로 해명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호작용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개념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호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호작용이며 다른 하나는 음성이나 문자를 포함한 기표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호작용이다.

표층적인 구조만 보면 삼성시조 신화와 혼인지 신화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용준의 삼성신화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현용준은 삼성시조 신화와 혼인지 신화의 화소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 신화들은 당을 중심으로 하여 수렵생활을 하다가 농업정착생활로 이전해 가는 신앙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마을이 설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두 신화의 표층에 드러나는 화소의 차이를 밝혀주고 있지만 혼인지의 신화적 의미를 구체화 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신화의 내용이 서로 중첩되어 있어 하나의 지역과 관련된 의미체계로 끌고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지의 신화적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 신화의 전승과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모흥혈과 혼인지라는 구체적 지명을 포함한 하나의 신화가 양쪽 지역에 구비 전승된 것으로 보는 경우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혼인지 신화와 삼성시조 신화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신화적 필요성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이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하나의 신화가 두 지역에서 구비 전승된 것이든 아니면 두 개의 신화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든 지역적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신화의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화는 모흥혈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시조신화소와 혼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혼인지 신화소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시조 신화소>

- ①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 ② 세 신인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가 모흥혈(毛興穴) 땅에서 솟아났다.
- ③ 사냥을 하며 살았다

<혼인지 신화소>

- ④ 한라산에서 고량부 세 신인이 사냥하다가 열운이로 내려왔다.
- ⑤ 그들은 바닷가에 떠밀려 내려온 삼신녀가 든 상자를 열었다.
- ⑥ 상자 안에서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오곡이 나왔다.
- ⑦ 혼인지에서 목욕재계하고 결혼하여 생활한다.
- ⑧ 그들은 내기를 해서 서열을 정했다.

삼성혈 신화나 혼인지 신화는 그 흐름이 동일하다. 하지만 이를 모흥혈과 혼인지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①~③까지는 삼성시조 신화소라 할 수 있고 ④~⑧까지는 혼인지 신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호학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삼성시조신화소인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의 경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이 없다’이다. 이때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종(種)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기 보다는 무리를 지은 종족(種族) 형성이나 어떤 권리를 가진 인간 또는 어떤 인간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는 문맥 앞에 놓여 있는 설문대 신화의 내용에서 그 의미를 연결시켜 찾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천지가 개벽하고 설문대가 제주 섬을 만들었으나 아직 사람이 없었다’는 부분이다. 여기서 설문대는 천지가 개벽하고 난 다음에 제주를 만든 신격으로 묘사되고 있다. 설문대 할망 또는 설문대로 통칭되는 이 신은 여성신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제주는 여성신의 지배하는 여성 중심의 모계 사회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신격, 그것은 여성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보다 물리적 힘이 강하고 여성 중심의 체제를 거부하고자 하는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남성신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로 읽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강하면서도

어떤 통치적, 인격적 특성을 지닌 남성이나 남성신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성시조신화의 두 번째 화소는 세 신인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가 모흥혈 땅에서 솟아났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를 끄는 것은 모흥혈(毛興穴)이다. 모흥혈(毛興穴)은 털이 무성한 구멍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상징되는 모성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흥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이는 아무리 남성신의 존재를 갈망하더라도 남성의 존재는 여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신격화하지 않고 모흥혈로 치환한 것은 남성성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세 신인의 출현은 물리적 힘이 강하면서도 어떤 통치적, 인격적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남성의 출현을 의미한다.

삼성시조신화의 세 번째 화소는 세 신인들의 생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사냥하면서 살았다. 사냥은 남성의 힘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사냥감을 쫓아 빠르게 이동하고 위험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의 생활양식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비해 물리적으로 우월한 남성의 영역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우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이들의 신격화 되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직까지 세 신인은 신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신인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이나 자격을 부여받거나 보여주지 못하는 한 세 신인은 단지 뛰어난 사냥꾼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혼인지 신화소는 온평리의 설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인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네 번째 화소는 혼인지 신화소로 한라산에서 고량부 세 신인이 사냥하다가 ‘열운이’로 내려왔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세 신인이 열운이로 왔다는 것은 열운이가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열운이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열운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기표의 네트워크들이다. 이 ‘열운이’와 관련된 기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기표들을 나열해 보면 열운이(烈雲伊), 열온이(烈溫伊), 열

혼이(烈婚伊), 열흔이(裂痕이), 혼례(婚禮), 여을온(餘乙溫), 영혼포(迎昏浦), 여온리, 예론, 등이 있다. 물론 기표상징이 이것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보면 혼례나 영혼포는 열운이와 기표 또는 개념 이미지가 네트워크의 한 양식으로 후대의 기록으로 말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열운이의 의미는 이를 제외한 앞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열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열흔’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갑골(胛骨)을 가지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온평리 분향당본풀이에서는 여신이 제주도 입도하는 한 곳이 온평리라는 점에서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추가 가능하다면 열운이는 ‘열흔’의 의미로서 여성신의 지배하는 곳, 당골이 있는 곳, 즉 분향당본풀이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런 점에서 세 신인이 열운이로 왔다는 것은 여성신이 지배하는 사회, 즉 당골이 있는 사회로 세력과 영역을 넓혀왔다는 의미이다. 이미 좌정한 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신을 세우고자 하거나 그 영역을 차지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당골이다. 다시 말하면 벽랑국 또는 금관국 공주들이 도착해서 신으로 좌정한 곳을 거쳐 그 위상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 신인이 살아가는 세계가 아직까지 모계중심의 사회로 여성신 사회이기 때문이다. 세 신인이 여성신의 지배하는 곳으로 영역을 넓혀왔다는 것은 여성신 중심의 사회와 새로운 남성중심의 사회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충돌 양상은 열운이에 도착한 그들의 행적을 통해 추리해볼 수 있다.

세 신인이 여성신이 지배하는 이곳으로 왔다는 것은 세 신인에게 고난의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세 신인의 영웅화 또는 신격화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의 출현은 기존의 신을 패퇴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존의 신격과 새로운 신격 간에 서열관계를 정립시켜야만 해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 신인은 열운이에서 기존에 여성신들을 제압하든지 아니면 복속되어 신격으로서의 상승을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

다섯 째 화소를 보면 세 신인은 황누알이라고 불리는 바닷가에 떠밀려 내려온 상자를 열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통 ‘알’은 신성한 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상자를 열었다는 의미는 시험에 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삼 신녀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온평

리 본향당 본풀이에 따르면 삼 신녀가 들어온 장소는 조천과 김녕 그리고 온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삼 신녀가 당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황누알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탐라개국과 관련된 삼 신녀 즉, 당신으로 좌정한 신의 서열을 고량부 삼 신인을 위한 것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천이나 김녕, 온평의 신으로 각각 좌정한 신의 입도과정을 온평리에서 한꺼번에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삼 신녀의 신격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그 입도의 목적을 고량부 삼신인을 위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 신격과 여성신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성신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화소는 여성신이 철저한 패배가 아님을 보여준다. 열운이에 내려온 고량부 삼 신인은 물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는 남성신을 표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여성신격을 철저히 파괴, 복속시키지 않는다. 여성신격을 인정하고 아우르면서 동시에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이어지는 여섯 번째 화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화소는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오곡이 상장 안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처녀 세 사람(삼 신녀)가 나왔다는 것은 세 신인과 삼 신녀가 결혼해서 정착해야 한다는 의미한다. 그리고 송아지, 망아지, 오곡이 나왔다는 것은 동시에 농경문화로 이전을 수락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모계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임신과 육아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정착생활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했다. 이는 제주의 본향당본풀이에서 신으로 좌정한 대부분의 당신들이 여성으로 드러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남성은 여성신 중심의 모계사회에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책임이 강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냥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에 대한 문화가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남성 중심의 봉건적 가치관이나 유교적 이데올로기나 입장에서 보면 남자다운 남자,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결혼은 남성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경문화를 받아들이고 기존의 수렵문화를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기존에 여성에게만 주어졌던 생활과 보육의 책임을 남성이 수용함으로써 여성에게만 주어

졌던 역할을 남성이 일부 수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여성신 중심에서 남성신 중심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도 일방적인 전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화소는 혼인지에서 목욕제계하고 결혼하여 생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목욕제계는 삼 신인에게는 기존의 사냥과 이동을 청산하고 정착과 농경문화로의 이행을 수용하는 것이라면 여성신에게는 기존의 우월적 지위인 당신으로서의 권한을 남성신에게 위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결혼의 의미는 남성신은 생활에서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이며 동시에 여성신들에게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갖는 어려움을 남성신들에게 위임하고 그들과 권한을 같이 나누겠다는 상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삼 신인과 삼 신녀의 관계이다. 모계중심의 사회는 일처다부제로서 일부일처제의 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계에서 삼 신인의 여성신 중심의 모계사회를 무너뜨리고 남성신 중심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부일처제를 여성신들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부일처제라고 해서 현대적 개념의 일부일처제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다처제도 여성에게는 강조되는 정조의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일부일처제의 한 양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내기를 해서 서열을 정했다. 남성 중심의 사회로의 편입은 필연적으로 힘의 서열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활쏘기나 나무에 오르기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서열과 힘으로 표상되는 남성 중심의 세계가 어느정도 완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결 론

혼인지 신화를 삼성시조 신화소와 혼인지 신화소로 나누어 그 의미를 기호학적으로 해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혼인지와 삼성혈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켜보았다. 우선 의미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여성신이 지배하는

여성 중심의 모계사회가 있었다. 그렇지만 힘과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족을 이끌고 정착을 통한 육아와 가족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도자다운 인격체가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신인의 자격을 갖춘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태어났고 이들은 사냥을 하면서 떠돌며 살다가 당골인 열운이로 내려가게 된다.

이때 열운이로 내려간 삼 신인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굳히기로 하고 당신으로 좌정한 삼 신녀와 타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삼 신인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 신녀가 자신들을 위해 온 것으로 바꾸면서 일부일처제라는 관념을 만들고 여성의 책임 하에 있던 보육과 농경생활의 책임을 수용하면서 기존의 여성신격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후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서열 관계도 정하게 된다.

여기서 혼인지 신화소는 기존의 제주에서 중심적 위치를 점했던 여성신이 남성신 중심으로 동시에 힘과 서열 그리고 일부일처제 라는 새로운 관념이 우세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탐라의 건국신화가 남성중심의 유교 사상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 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혼인지 신화소는 수렵생활을 하다가 농업정착생활로 이전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문명의 발달사나 유교적 이념에 치중하여 수용한 평가의 틀로 보인다.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여성신 중심의 탐라의 개국 신화와 남성신 중심의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한 지역이라는 점, 다르게 표현하면 탐라의 개국 신화 최후의 보루로서 유교적 제의에 의해 의미가 잠재되어 버린 곳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이처럼 혼인지와 혼인지 신화에 잠재된 의미 발굴을 통해 그동안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제주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논의를 조금이나마 확대시키려 노력하였다. 비록 이 이야기들이 제주지역의 단편적인 신화이지만 이러한 잣은 논의를 통해서 제주지역의 고유지명과 유래, 신화 더 나아가 제주문화에 대한 많은 시각적 접근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래서 풍성한 과거 문화를 바탕으로 21세기 신문화 창조와 더 나아가 문화산업으로 이어져 제주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참 고 문 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 김봉옥, 『제주통사』, 세림, 2001.
- 김태권, 『한국 무가집』, 집문당, 1979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 보존회, 1998.
-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소두영, 『문화기호학』, 사회문화연구소, 1995.
- 송문석, 『인지시학』, 푸른사상, 2004.
-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 이정모, 『인지심리학』, 아카넷, 2001.
- 장덕순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제주도교육청,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 한국기호학회, 『기호학연구 1: 문화와 기호』, 문학과 지성사, 1995.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